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요한1서 —

임진수*

1. 요한1서 1:11)

GN*T⁵*

"Ο ἡν ἀπ' ἀρχῆς, ὃ ἀκηκόαμεν, ὃ ἐωράκαμεν τοῖς ὀφθαλμοῖς ἡμῶν, ὃ ἐθεασάμεθα καὶ αἱ χεῖρες ἡμῶν ἐψηλάφησαν περὶ τοῦ λόγου τῆς ζωῆς-

『개역개정』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
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
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
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공동개정』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새한글』

처음부터 있던 것, 우리가 들어 온 것, 우리의 눈으로 보
아 온 것, 우리가 자세히 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 보았
던 것, 곧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전합니다.

* Kirchliche Hochschule Bethel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 신
약학 교수. mtsijs@naver.com

1) 한글 번역본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https://www.bskorea.or.kr>)를 참조하였습니다.

1.1. 차이점 관찰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요한1서를 번역할 때 1:1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어 전치사구 $\alphaπ'$ $\alphaρχής$ 가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태초부터’로 번역하고 있고, 『공동개정』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로, 그리고 『새한글』은 ‘처음부터 있던 것’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태초부터’를 채택한 본문들이 우리말 성경의 요한복음 1:1의 그리스어 전치사구 $Ἐν \alphaρχῇ$ 에 대한 번역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태초에’로 번역하고 있고, 『공동개정』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개정』은 요한 1서 1장을 번역할 때 이렇게 요한복음 1:1을 염두에 두면서, ‘한처음’을 삭제하고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번역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ἐν \alphaρχῇ$ 와 요한1서의 $\alphaπ'$ $\alphaρχής$ 가 동일한 의미의 창조와 관련된 ‘태초’로 번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상황의 ‘시작점’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1.2. 외국어 역본 참조²⁾

이 문제에 관한 도움을 얻고자 외국어 번역이 요한복음 1장의 $ἐν \alphaρχῇ$ 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어 <루터성경>(이하 LB)은 이것을 ‘시작할 때에(Im Anfang)’로 번역하고 있고, <기초성경>(이하 BB)은 ‘시작부터(Von Anfang)’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ESV와 NIV는 ‘시작할 때에(In the beginning)’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1서 1:1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독일어와 영어 번역은 모두 ‘시작부터(von Anfang an/from the beginning)’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1.3. 『새한글』 번역에 대한 신학적 고찰

『새한글』이 $\alphaπ'$ $\alphaρχής$ 를 ‘처음부터’로 번역한 것은 요한1서 1:1의 내용이 요한복음 1:1의 창조론과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의 $ἐν \alphaρχῇ$ 를 로고스의 창조론 관점에서 읽으면 ‘태초’라는 우리말 번역은 훌륭해 보입니다. 그것은 네이버 우리말 국어사전이 태초(太初)를 ‘하늘과 땅이 생겨난 맨 처음’³⁾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잘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요한1서 1:1의 $\alphaρχή$ 는 요한복음과 동일한 ‘처음’과 연결되어 있습

2) <https://www.die-bibel.de/en> (2024. 8. 3.).

3)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D%83%9C%EC%B4%88> (2024. 8. 3.).

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요한복음은 ἐν ἀρχῇ로 되어 있고, 요한1서는 ἀπ' ἀρχῆς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한글』이 요한복음을 번역하며 1:1의 시작을 ‘처음에’로 번역한 것을 요한1서가 이것을 의식하면서 그 시작을 ‘처음부터’로 번역한 것은 두 본문이 가지는 시간의 차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 요한1서 2:18

GNT⁵

Παιδία, ἐσχάτη ὥρα ἐστίν, καὶ καθὼς ἡκούσατε ὅτι
ἀντίχριστος ἔρχεται, καὶ νῦν ἀντίχριστοι πολλοὶ
 γεγόνασιν, ὅθεν γνώσκομεν ὅτι ἐσχάτη ὥρα ἐστίν.

『개역개정』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새번역』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
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공동개정』

어린 자녀들이여,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리스도의 적이 오리라는 말을 들어왔는데 벌써 그리스
도의 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새한글』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대
적하는 자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지금 그
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실
 로부터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2.1. 차이점 관찰

위에서 제시한 GNT⁵에 나오는 ἀντίχριστος를 우리말 성경은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로 번역하고 있고, 신약성서 안에서는 요한1서와 요한2서가 총 5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대부분은 이 단어를 번역하면서 그리스도와 대결을 벌이고 있는 신화적인 악의 세력이나 주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 가톨릭 『200주년 신약성서』는 이것을 ‘반그리스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⁴⁾ 이것은 번역자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

4) <https://bible.cbck.or.kr/200/1Jn/2> (2024. 8. 3.).

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2. 외국어 역본 참조

외국어 성경이 ἀντίχριστος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어 LB와 영어 ESV, NIV는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대부분 antichrist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다음 세대를 위한 BB는 ‘적’, ‘악마(Widersacher)’라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고 있고, <새 제네바 성경>(NGÜ)은 ‘그리스도의 반대자(Gegenchristus)’, 즉 ‘Antichrist’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ἀντίχριστος라는 단어 안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3. 『새한글』 ἀντίχριστος 번역에 대한 신학적 고찰

『새한글』은 이 단어를 번역할 때 기존의 우리말 번역을 참조하면서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 순화시켜서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번역은 『새한글』 번역이 이 용어와 관련하여 요한서신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 올바른 신앙고백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ἀντίχριστος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어 전치사 ἀντί와 보통명사 χριστός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어 전치사 ἀντί는 ‘~ 대신에’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것을 명사와 결합하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원래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의미입니다.⁵⁾ 따라서 ἀντίχριστος는 그리스도를 왜곡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번역을 요한서신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여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번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요한1서 3:2

GNT ⁵	Ἄγαπητοί, νῦν τέκνα θεοῦ ἐσμεν, καὶ οὕπω ἐφανερώθη τί ⁶ ἐσόμεθα. οἴδαμεν δτι ἐὰν φανερώθῃ, ὅμοιοι αὐτῷ ἐσόμεθα, δτι ὀψόμεθα αὐτὸν καθὼς ἔστιν.
------------------	---

『개역개정』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u>나타나지</u>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	---

5) E. Reinmuth, *Der zweite Brief an die Thessalonicher*, NTD 8/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 179.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새번역』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 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뽑게 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공동개정』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뽑겠기 때문입니다.
『새한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러하신 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1. 차이점 관찰

여기서 다루는 그리스어 동사 φανερόω의 함의를 이해하거나 밝히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동사는 ‘분명하게 하다’, ‘알리다’, ‘나타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동사는 ἀποκαλύπτω이며, 그 의미는 ‘분명하게 하다’, ‘빛으로 드러내다’, ‘계시하다’입니다. 이 두 개의 동사는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바울서신은 ἀποκαλύπτω를 선호하고, 요한서신은 φανερόω를 선호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우리말 번역들을 살펴보면 요한서신의 한 절 안에 두 번 나오는 이 동사를 『개역개정』은 ‘나타나지-나타나시면’, 『새번역』은 ‘밝혀지지-나타나시면’으로, 『공동개정』은 ‘분명하지-나타나시면’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한글』도 이러한 번역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밝혀지지-나타나시면’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번역의 경향들을 살펴보면서 이 단어가 요한서신 안에서는 매우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 동일 단어의 반복을 피하려고 하였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요한서신들의 공동체 구성원들도 변화됨(transformation)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3.2. 외국어 역본 참조

앞에서 외국어 성경을 살펴본 것처럼 요한1서 3:2를 볼 때 우리가 다루고 있는 φανερόω 동사를 LB는 ‘분명하게 되다(offenbar werden)’로 통일하여 번역하고 있고, BB는 ‘볼 수 있다(sichtbar)’와 ‘분명하게 되다(offenbar werden)’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V는 ‘나타나다’, ‘등장하다’의 의미의 appear로 번역하였고, 반면에 NIV는 ‘알려지다(be made known)’와 ‘나타나다(appear)’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 단어가 번역이 어렵고, 특히 2회에 걸쳐서 수동태(passive)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서는 더욱 곤혹스러워 보입니다.

3.3. 『새한글』 φανερόω 번역에 대한 신학적 고찰

『새한글』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본문 안에서 φανερόω를 ‘밝혀지지-나타나시면’으로 번역하는 것도 번역자 나름의 고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서술하는 신학적인 함의(connotation)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본문 안에서 사용되는 이 동사가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로 표현되는 것은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따라서 『새한글』이 이 단어를 ‘밝혀지다’로 번역하는 것은 이 동사가 종말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 혹은 등장의 순간을 말하고 동시에 그를 믿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변화됨(transformation)을 설명해 주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새한글』 번역은 그리스도 원문이 가지는 이런 의미를 잘 담아내고자 큰 고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요한1서 4:10

GNT⁵

ἐν τούτῳ ἐστὶν ἡ ἀγάπη, οὐχ ὅτι ἡμεῖς ἡγαπήκαμεν τὸν Θεὸν ἀλλ᾽ ὅτι αὐτὸς ἡγάπησεν ἡμᾶς καὶ ἀπέστειλεν τὸν γίδην αὐτοῦ **ἱλασμὸν** περὶ τῶν ἀμαρτιῶν ἡμῶν.

『개역개정』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새번역』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공동개정』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느님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새한글』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없애 주는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4.1. 차이점 관찰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ἱλασμός*는 신약성서 안에서 요한1서 2:2와 4:10 안에서 총 2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속죄’, ‘보상’, ‘화해’입니다.⁶⁾ 그러나 위의 우리말 번역의 예들이 보여 주는 것처럼 ‘화목 제물’, ‘제물’, ‘희생제물’의 의미는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러나 요한1서 4:10은 *ἱλασμός*가 다음에 나오는 *περὶ τῶν ἀμαρτιῶν ἡμῶν*(우리들의 죄를 위한)의 전치사구에 의해서 속죄와 죄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이것과 유사한 단어가 로마서 3:25와 히브리서 9:5에 나오는 *ἱλαστήριον*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문맥은 모두가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ἱλασμός*는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이 아니라 친히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결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예수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이라는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4.2. 외국어 역본 참조

LB는 *ἱλασμός*를 ‘화해를 위하여(zur Versöhnung)’로 번역하고 있고, BB는 ‘화해하게 하였다(hat … versöhnt)’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V는 to be the propitiation(위로, 달래기, 속죄가 되도록)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NIV는 보상, 속죄하는 희생제물(an atoning sacrific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의 사례들은 이 단어의 번역이 어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단어 안에 ‘속죄’, ‘보상’, ‘화해’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6) W. Bauer, *Griechisch-deutsches Wörterbuch zu den 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und der frühchristlichen Literatur* (Berlin; New York: W. de Gruyter, 1988), 762.

4.3. 『새한글』 *ἱλασμός* 번역에 대한 신학적 고찰

『새한글』은 *ἱλασμός*를 ‘희생제물’로 번역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자신을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내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위한’ *ἱλασμός*이므로 『새한글』이 ‘우리들의 죄를 없애 주는 희생제물’로 번역하는 것은 이 단어의 본래 의미를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 줍니다.

5. 요한1서 5:14

GNT ⁵	αὶ αὕτη ἐστὶν ἡ <u>παρρησία</u> ἥντις φέμεν πρὸς αὐτόν ὅτι ἔάν τι αἰτώμεθα κατὰ τὸ θέλημα αὐτοῦ ἀκούει ἡμῶν.
『개역개정』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u>답대함</u> 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새번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u>답대함</u> 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공동개정』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u>확신</u> 합니다.
『새한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가진 <u>확신</u> 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5.1. 차이점 관찰

상대적으로 요한복음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명사 *παρρησία* 역시 번역에서 어려움을 제공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말함에 있어서의 솔직함, 정직, 공명정대’입니다. 그리고 ‘솔직’, ‘숨김없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요한1서 3:21과 우리가 다루는 5:14 안에서는 ‘기쁨’, ‘굳건한 신뢰’를 의미합니다.⁷⁾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인식하여 번역자들이 ‘답대함’과 ‘확신’으로 번역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어 본문을 중심으로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간청할 때 들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으로 ‘확신’이라는 번역은 타당해 보입니다.

7) Ibid., 1273.

5.2. 외국어 역본 참조

LB와 BB는 παρρησία를 ‘Zuversicht(확신)’로 번역했고, ESV와 NIV도 이 것을 ‘confidence(자신감, 신뢰, 확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어 성경의 번역들이 때로는 우리말 번역에 영향을 준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국어 번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처음 번역을 시도할 때 매우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어로 기록된 본문의 원래 의미를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잘 고려해서 번역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3. 『새한글』 παρρησία 번역에 대한 신학적 고찰

『새한글』이 이 단어를 ‘확신’으로 번역한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이나 ‘확신’은 서로 의미를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한글』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요한서신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신앙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잘 표현해 줍니다. 이 확신은 공개적인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이어져 그 신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를 타국의 언어로 일대일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는 것은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의 상황에 맞게 잘 전달하여 과거와 오늘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와 신앙의 현주소를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제어>(Keywords)

처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밝혀지다, 희생제물, 확신.

The Beginning, Antichrist(s), be revealed, Sacrifice, Confidence.

(투고 일자: 2024년 9월 5일, 심사 일자: 2024년 9월 24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12월 20일)